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초등학교사의 인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좌 안 나

2009년 8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지도교수 김 양 순

좌 안 나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좌안나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8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5
- 2. 생활적응 8
- 3. 심리적 적응 14
- 4.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15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16
- 2. 측정 도구 18
- 3. 자료수집 절차 20
- 4. 분석방법 21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 22
- 2.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28
- 3.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상관관계 31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34
- 2. 제한점 및 제언 36

참고문헌 37

Abstract 40

부록 42

<표 차례>

<표 - 1> 전국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현황	6
<표 - 2>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현황	7
<표 - 3> 초등학교사의 일반적 배경	17
<표 - 4>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일반적 배경	17
<표 - 5> 측정척도의 요인별 문항 수 및 기술	19
<표 - 6>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성별에 따른 생활적응 차이	20
<표 - 7>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학년에 따른 생활적응 차이	23
<표 - 8>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과 학업능력 및 학교생활적응	24
<표 - 9>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의 어려움	25
<표 - 10>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	26
<표 - 1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성별에 따른 심리적 적응 차이	28
<표 - 1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심리적 적응 차이	30
<표 - 13>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상관관계	31

국문초록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좌 안 나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양 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아동의 학업성취 및 생활적응 문제를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 152명의 담당교사로 선정하였다. 2008년 11월 중순부터 2009년 2월 초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 중 97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의 학년에 따른 생활적응의 차이에서는 저학년 아동이 고학년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 중에서 일부는 문제행동(16.5%)과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30.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적응은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이 좀 더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저학년 아동에 비해 고학년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영역 간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경험 할 수 있는 심리적 적응 문제를 다루고 문제해결 방법을 예견 할 수 있는 설명변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이들이 건강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인 백이십만여명으로 이 중 결혼이민자의 수가 십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2000년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결혼이민자가정의 비중은 3.7%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1.1%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말 혼인건수의 약 3,576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289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8).

결혼이민자가정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농어촌의 실정은 10가구 중 한 가구 씩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가정이 많으며 5년 후에는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4분의 1이상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자녀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오성배, 2007).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은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한 민·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관 차원의 정책은 이제 겨우 시작 수준으로 체계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그동안은 주로 성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여전히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고 있으며,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6)에서 실시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실태조사에서 아동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성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 장애(ADHD)등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고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인한 정서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사회적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은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에서 한국어의 어려움을 지닌 채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주변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만들어지는 다문화·다민족 현상은 한국사회에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은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적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급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이라는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다문화적 실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및 생활적응과 관련된 문제는 학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청소년기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성인기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학업성취 및 생활적응 문제를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생활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정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정도에 대한 초등학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생활적응과 심리적 적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은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5.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하위요인 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

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정의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1980년 후반부터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 다’라는 의미로 이를 ‘다문화’라는 말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한 단어에 포함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이질적이므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나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의 혼인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한국인 혈통의 자녀를 코시안(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부르게 되었다(2007, 박성혁).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2008)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4 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법률 제 8937호, 2008. 3. 21 제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항의 정의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 이민자’)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정의한다.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현황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 2조 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다. 전국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 현황은 <표 - 1>과 같다.

<표 - 1> 전국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 현황

(단위: 명, %)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결혼이민자가정 학생 수	11,444	1,588	413	13,445
구성비	85.1	11.8	3.1	100.0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수	10,387	1,182	256	11,825
구성비1)	90.8	74.4	62.0	88.0

「2007년 4월 기준」

* 주 : 1) 모(母)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결혼이민자가정 학생수 대비임

출처 : 통계청, 2008 청소년통계

<표 - 1>에서 한국 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수는 2007년 4월 전체 13,445명으로 초등학생 11,444명, 중학생 1,588명, 고등학생 41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1,825명으로 결혼이민자가정의 88.0%이고,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은 초등학생 90.8%, 중학생 74.4%, 고등학생 62.0%로 조사되었다(2008,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 현황은 다음 <표 - 2>와 같다.

<표 - 2>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 현황

(단위: 명)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17	152	20	7	196

「2008년 4월 기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 다문화 가정 아동 학교급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08년 4월 실시한 다문화가정 아동현황조사에 따르면 도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2007년 145명에 비해 42%가 증가한 총 207명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196명, 외국인근로자 아동 4명, 새터민 아동은 7명이다. 다문화가정 아동 중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재학 현황은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7명으로 총 196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15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생활적응

1) 생활적응의 정의

적응은 인간이 다양한 욕구 사이에서 또는 욕구와 그들 주변 환경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적응이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욕구와 환경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인지·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아동의 인지발달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Lenneberg(1967)는 언어에는 2세부터 사춘기에 이르기 까지를 언어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으며 언어발달의 생득적 시기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Breuner(1997)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언어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얼마나 언어에 노출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능력은 결정적 시기에 언어적·사회적으로 풍부한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과 더불어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동의 활동반경이 가정을 벗어남에 따라라 부모형제 뿐만 아니라 학교, 또래집단, 주위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관계 이외의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또래관계이다.

Bagwell, Newcomb, & Bukowski(1998)의 연구에서 아동기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수용은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이후 청소년 비행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2007)

본 연구에서는 생활적응을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 능력,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

① 한국어능력

가정환경은 언어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정의 충분한 모국어 습득 환경과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사용언어 및 의사소통 유형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은희, 2004).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 경우는 2007년 전체의 88.0%로 이 아동들은 대부분 출생 이후 가정교육을 외국 출신어머니에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어머니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결정적 시기’가 지났으므로 한국어 능력이 일반 한국인 어머니와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 모국의 문화와 언어배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면 이들의 성장과정이 일반 한국인 가정의 아동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의 언어에 관한 선행연구들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5)에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에서 이주여성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시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설동훈(2005)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주 여성이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정을 이룬 집안의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성배(2005)의 ‘코시안 자녀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코시안 아동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문장이해력, 작문 과정에서의 받아쓰기와 독후감 정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음을 보고하였다.

정지영(2008)은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 및 교사의 교육적 갈등’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언어 유형 면에 있어서 학년이 낮을수록 언어적 미숙으로 침묵하거나 길게 물어도 짧게 대답하기 등의 단순한 언어생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양육자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발달 관련 연구자들은 영·유아기의 아동-양육자간 상호

작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병리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행동에 대하여 양육자가 민감하고도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 자녀들이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류하는 상호작용이 아동의 언어 발달 지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적응

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아동과 학교에 다니면서 없었던 문제를 가지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업능력이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기본적인 학업기능과 사회기능을 갖추지 않고 입학할 경우 또래 및 교사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갖게 될 가능성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설동훈(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집단 따돌림을 받거나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일반한국가정의 초등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13.4%)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한국가정의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과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일반한국가정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해서(29.4%)'인 반면,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은 그들이 지닌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결혼이민자가정이라는 이유 때문(34.1%)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아동들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연령이 되면 사춘기에 접어든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

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 10명중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다문화가정 아동 2007년 기준 총 244명으로 이 중 71명(29.09%)은 ‘학교 밖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 다문화가정 아동 185명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46명으로 10명 중 8명은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부적응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고등학교 학령기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본인인 경우로 외모 등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10명 중 7명은 정규 교육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민일보;2008.10.29).

선행연구 및 신문기사를 통해 한국사회 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중 일부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에 겪는 어려움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초등학교 재학 중으로 피부색, 언어능력, 부모배경 등으로 인한 차이로 발생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장한다면 이들이 상급학교 진학 때는 더 큰 혼란이 예상 된다. 이들의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은 학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인지·정서·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③ 학업수행 능력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 부진으로 인해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또래 아동에 비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이 뒤쳐질 수 있다. 이러한 학습부진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영달(2006)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홍영숙(2007)은 ‘다문화 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의 문제와 시사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독해 · 어휘력 · 쓰기 · 작문능력이 현저히 낮음을 보고하였다.

김경자(2007)의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에서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발달의 지체나 기능상의 손상으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비교연구를 통해 밝혔다.

보건복지부(200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이 국내 저소득층 자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혜영(2008)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학업 수행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이주민이 아버지인 경우보다 어머니인 경우가 학업 수행에 더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이민자아동들이 학업수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한국어와 관련된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학교수업에 한국어와 관련된 국어 및 사회과목 등에는 어려운 어휘 및 배경지식 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이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학업부진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④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중 다수는 사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어려운 교육 여건에 처해 있어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영달(2006)은 다문화가정이 아동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인해 지식은 물론 정서와 태도에서까지 초등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도가 일반 한국인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전경숙(2007)은 경기도내 초 ·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7%가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어렵다(38.5%)’, ‘숙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20.8%)’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능력이 뒤떨릴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⑤ 문제행동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르므로 인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조영달(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아동을 둔 조선족 어머니는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문화와 현재 생활하는 한국 문화에서 겪는 차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이것이 아동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다른 사례로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아동은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다고 비난하는 문제를 토로하였다.

이재분(2008)은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실태'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가정체성 문제와 관련한 심층 면담결과, 80명의 면담대상 학생 중 45명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였고, 26명은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보였으며, 나머지 9명은 자신이 이중국적을 가졌고 응답했다.

선행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사회심리적인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생활부적응 요인으로 작용 되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을 위한 연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심리적 적응

1) 심리적 적응의 정의

Hofsta et al, (2000), Risi, Gerhardstein, & Kistner(2003)는 심리적 적응의 개념을 심리적 상황에 따른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라 하였다. 이들은 성인에 비해 아동의 대처능력은 미숙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신체·인지·사회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여 발생하는 아동기의 손상은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적, 학문적 기술 획득의 기회를 잃게 됨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문제는 아동기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의 발달과 더불어 더 큰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됨을 보고하였다(2008, 장은숙,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이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 지적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문제, 사회관계 및 현실접촉과 관련된 정신에 따른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로 정의한다.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아동은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대를 터득하게 되므로 사회, 문화적 환경은 아동의 정서, 사회성 그리고 행동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와 문화 내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행동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은 일탈된 행동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러한 가치나 행동기준은 사회나 문화 특유의 관습,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이나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라는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은 채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심리적 적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

로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식이란 객관적 실재가 인간의 의식에 이론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넓은 의미로는 인간 지식의 총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일정 범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모경환 & 황혜원(2007)에 의하면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 등 연구들에서 교사들의 다문화적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이해 수준도 높은 편이고, 많은 교사들이 인간관계 중심 관점과 배려 중심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분(2008)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심층면담에서도 면담교사의 1/3만이 연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연수 주관기관은 학교(7명), 교육청(6명), 대학교(3명) 순이었다. 다문화교육연수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물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총 9명 중 5명,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4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들과의 심층면담 결과, 43명 중 25명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부담이 되는 이유로는 설문, 연수 참여 등의 부가적인 업무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이의 학습적인 측면 및 생활지도 측면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과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을 들었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내재적 문제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편견과 인식이다.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에게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인식은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심리적 적응 정도의 파악으로 정의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 예비조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던 경험의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하루 종일 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은 성인과 같이 인격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라도 연령에 따라 정상이 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추어 아동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평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내면적 세계 및 외현적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같이 구조화된 장면에서 부모나 다른 관찰자가 관찰하기 어려운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이므로 문제행동의 심리학적 평가와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2007. 홍상황, 유현실).

본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과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 3>, <표 - 4>와 같다.

1) 초등교사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교직사회의 특성상 여교사 78명(80.4%)가 남교사 19명(19.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직경력에서 16년 이상이 40명(41.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하 22명(22.7%), 11~15년 18명(18.6%), 6~10년 17명(17.5%)이다.

이들 중 다문화 교육을 경험 비율은 54명(55.7%)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경험한 경로는 교육기관 26명(26.8%), 책 또는 팜플렛 13명(13.4%), 마스크10명(10.3%), 기타 4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 3>과 같다.

<표 - 3> 초등교사의 일반적 배경

(N=97)

특성	빈도	빈도수(%)
성별	남성	19
	여성	78
교직경력	0 ~ 5 년	22
	6 ~ 10 년	17
	11 ~ 15 년	18
	16 년 이상	40
	예	54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아니오	43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해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대상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아동이 49명(49.5%)이고 여자아동 48명(49.5%)으로 두 집단 간의 비율이 비교적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학년은 저학년 62명(63.9%)으로 고학년 35명(36.1%)보다 높은 분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표 - 4>와 같다.

<표 - 4>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일반적 배경

(N=97)

특성	빈도	빈도수(%)
아동 성별	남자	49
	여자	48
아동 학년	저학년	62
	고학년	35

2.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평정하여 응답하는 설문형식이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구성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평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

초등학교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어 능력, 학업수행 능력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정하는 내용 3문항과 이들의 문제행동 여부, 학업수행능력의 어려움 유무를 평정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2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한다.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초등학교사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용보고형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 Teacher Rating Form)는 아동의 부적응과 정신병리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부모용보고형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김지혜, 조선미, 홍창의, 황순택, 2006)의 문항을 교사들이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타당화한 교사용보고형 (Teacher Rating Form) 평정척도이다(우순연, 홍상황, 황순택, 2005).

이는 11개의 척도로 자아탄력성 척도, 지적 발달과 관련된 언어발달, 동작발달척도, 정서문제와 관련된 불안, 우울, 신체화 척도, 행동과 관련된 비행, 주의력결핍척도,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가족관계, 사회관계척도 및 현실접촉과 관련된 척도로 구성되어

총 179문항이며 요인별 문항 수 및 기술은<표 - 5>와 같다.

본 척도의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채점은 요인별 점수 합산 후 이를 요인별 문항수로 나누어 개인의 요인별 점수로 산출한다. 산출된 요인별 점수가 높은 수록 영역의 문제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69~.88범위이다.

<표 - 5> 교사용보고형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의 요인별 문항 수 및 기술

영역	척도	문항수	기술
	자아탄력성	18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대처능력이나 적응잠재력을 측정.
발달	언어발달	12	언어적 능력에서 발달의 지체나 기능상의 손상을 측정.
	운동발달	13	정신운동기능이나 동작성 능력에서 발달의 지체나 기능상의 손상을 측정.
정서	불안	15	자연현상이나 동물, 대인관계 또는 사회관계에서의 두려움, 불안, 긴장 측정.
	우울	15	우울한 기분, 자신감의 결여, 활동성의 저하등과 같은 우울관련 특징을 측정.
	신체화	15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증상으로 나타내는 신체화의 경향성 측정.
행동	비행	15	반항, 공격성과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의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를 측정
	주의력결핍	19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 등을 의미하는 문항.
관계	가족관계	18	가족 내의 역동이 아동의 부적응이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
	사회관계	14	또래관계나 어른들과의 관계 등 아동의 사회관계에서 어려움 측정.
현실 접촉	정신증	19	언어, 사고, 행동에서의 특이함이나 현실접촉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아동을 가려내기 위한 척도임.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현황 파악 및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9월~2008년 11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3회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예비조사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08년 9월 15일까지 2주 동안 제주도내 위치한 초등 2개교를 선정하여 이곳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총 10명을 대상으로 자가 평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이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으며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대다수였다.

두 번째 예비조사는 2008년 10월 11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혼이민자가정 부부 중 아동을 둔 총 10쌍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거된 설문지는 부실 기재된 것이 대부분으로 통계분석이 불가능 하였다.

세 번째 예비조사는 초등학교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용보고형 아동평정척도를 이용하여 2008년 10월 중순부터 2008년 11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제주도내 위치한 초등 6개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관한 자료 총 30부를 수집했다. 조사방법은 각 교사에게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수에 맞추어 설문지와 이에 관한 실시요령 안내문 1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교사로부터 직접 수령 하거나 반송봉투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교사들에게 실시한 예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교는 전체 53개교 중 50개교이다. 본 조사의 실시는 2008년 11월 중순부터 2009년 2월 초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최종 39개교의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설문지 102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여 총 97부를 연구 자료로 최종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정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대한 102부의 설문자료 중 불충실하게 기재된 5부를 제외하여 총 97부에 관한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t - test,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 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하위요인 간 상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

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의 생활적응의 차이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 6>와 같다.

<표 - 6>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성별에 따른 생활적응 차이

(N=97)

구분	남자아동(N=49)		여자아동(N=48)		t
	M	SD	M	SD	
아동의 한국어능력	1.53	.68	1.31	.55	1.73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1.45	.61	1.44	.50	.101
아동의 학업수행	1.80	.70	1.88	.67	-.546
아동의 문제행동	1.78	.42	1.90	.30	-1.601
아동 학업수행과정	1.61	.49	1.77	.42	-1.697

<표 - 6>와 같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아동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학년에 따른 아동의 생활적응의 차이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아동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 7>와 같다.

<표 - 7>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학년에 따른 생활적응 차이

(N=97)

구분	저학년(N=62)		고학년(N=35)		t
	M	SD	M	SD	
아동의 한국어능력	1.45	.64	1.37	.56	.60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1.44	.56	1.46	.56	-.183
아동의 학업수행	1.82	.64	1.86	.77	-.237
아동의 문제행동	1.90	.29	1.71	.45	2.191*
아동 학업수행의 어려움	1.69	.46	1.69	.47	.079

* $p < .05$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학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행동 ($t=2.191$, $p<.05$)은 저학년($M=1.90$)과 고학년($M=1.71$)로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의 저학년 아동이 고학년 아동에 비해 좀 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3)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한국어능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 능력정도,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 문제행동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 학업능력, 학교생활적응

초등교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 및 학업능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 8>과 같다.

<표 - 8>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과 학업능력 및 학교생활적응
(N=97)

특성		빈도	빈도수(%)
한국어능력	상	63	64.9
	중	27	27.8
	하	7	7.2
학업능력	상	32	33.0
	중	49	50.5
	하	16	16.5
학교생활적응	상	57	58.8
	중	37	38.1
	하	3	3.1

<표 -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적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어능력 정도는 상 63명(64.9%), 중 27명(27.8%), 하 7명(7.2%)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능력은 상 32명(33.0%), 중 49명(50.5%), 하 16명(16.5%)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상 57명(58.8%), 중 37명(38.1%), 하 3명(3.1%)이다. 이는 초등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 및 학업능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재학 중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생활 부적응 유형

결혼이민자 아동들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을 유사한 유형끼리 분류한 내용은 <표 - 9>와 같다.

<표 - 9>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N=16)

구분		문제행동
행동	비행	흡연을 함 교사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자주 보임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계속 울며 큰소리를 냄 학교물품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함 학습을 방해하며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잦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킴
	가족 관계	부모가 아이를 방임함 어머니와의 마찰로 항상 귀가시간이 늦음 부모의 직장생활로 인하여 도움의 손길이 부족함
대인 관계	사회 관계	친구들과 의사소통 및 성격충돌이 잦음 또래아동이면 누구나 겪는 친구 문제로 다툼 적이 있음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잦음 자신의 생각에 대해 끝까지 고집을 부려 설명이 통하지 않음 자신의 잘못은 인정안하고 친구들의 잘못은 쉽게 넘어가지 못함 친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며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귀찮게 여김
현실접촉	정신증	행동이 불안정하며 늘 손톱을 물고 다니며, 가끔 변태적인 행동을 보임

초등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의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문제행동이 있다고 인식된 아동이 16명(16.5%)이고, 문제행동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은 81명(83.5%)으로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수가 낮게 나타났다.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에는 한국어 능력이 낮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기초학습 부진으로 인한 전반적 교과학습에 어려움이 많았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업수행과정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초등교사의 응답을 유사한 유형끼리 분류한 내용은 <표 - 10>와 같다.

<표 - 10>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 (N=30)

		유형
발달	기초	이해력부족 학습부진 및 모든 문제해결력이 늦음 보충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해결력이 부족함 기초가 부족하여 교과 학습이 전반적으로 어려움 기본학습 결여로 특별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약함
	언어	한글을 익히지 못함 한자 및 고학년 국어독해에 어려움 간단한 글 읽기 받아쓰기 등을 어려워함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 목소리 듣기가 어려움 한글을 어눌하게 소리로만 읽으며 그 뜻은 파악하지 못함 된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빈도가 다른 아동에 비해 잦음 맞춤법이 미숙하고 문장부호 사용 등 문장 구성을 어려워함
	수리	수학문제해결능력부족 수학적 개념 이해에 시간이 다소 걸림
행동	주의력결핍	공부에 관심이 없어 집중을 못함 자꾸 이상한소리를 내고 수업시간에 계속 돌아다님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겪는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30명(30.9%),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이 67명(69.1%)으로 절반이상의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학업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 30%는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을 겪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교사의 인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습지원, 언어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2.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 11>와 같다.

<표 - 11>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성별에 따른 심리적 적응 차이

(N=97)

구분		남자아동(N=49)		여자아동(N=48)		t
		M	SD	M	SD	
자아탄력성		23.65	3.79	24.54	4.11	-1.106
발달	언어발달	9.29	5.18	6.52	3.77	3.007**
	동작발달	8.04	3.76	6.45	2.30	2.515*
정서	불안	3.73	4.32	4.56	3.45	-1.043
	우울	7.41	5.423	7.21	4.70	.188
	신체화	10.08	4.12	9.90	4.50	.213
행동	비행	5.22	4.90	5.59	14.55	-.322
	주의력결핍	10.00	10.07	6.06	8.51	2.081*
대인관계	가족관계	9.16	6.70	8.46	5.07	.583
	사회관계	14.53	4.84	15.25	4.91	-.727
현실접촉	정신증	4.96	6.61	4.68	14.51	.120

* $p < .05$, ** $p < .01$

<표 - 11>에서 아동 성별에 따른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언어발달, 동작발달, 주의력결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영역에서 중 언어발달($t=3.00, p<.01$)은 남자아동($M=9.29$)과 여자아동($M=6.52$)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의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언어적 능력에서 발달의 지체에 따른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작발달($t=2.51, p<.05$)은 남자아동($M=8.04$)과 여자아동($M=6.45$)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운동기능, 동작성 능력에서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동영역에서 중 주의력 결핍($t=2.08, p<.05$)은 남자아동($M=10.0$)과 여자아동($M=6.00$)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의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대한 하위요인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비행($t=-1.769, 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심리적응이 하위요인인 중 비행은 $p<.01$ 수준에서 고학년($M=8.86$)이 저학년($M=3.73$)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사가 지각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서 반항, 공격성,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의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 12>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심리적 적응 차이

(N=97)

구분		저학년(N=62)		고학년(N=35)		t
		M	SD	M	SD	
자아탄력성		23.84	3.52	24.54	4.65	-.840
발달	언어발달	7.94	4.66	7.89	4.91	.505
	동작발달	7.37	3.08	7.06	3.49	.452
정서	불안	3.59	3.33	5.11	4.65	-1.860
	우울	7.39	4.94	7.18	5.34	.194
	신체화	10.52	4.45	9.06	3.88	1.625
행동	비행	3.73	3.54	8.86	16.94	-1.769*
	주의력결핍	7.50	8.17	9.03	10.80	-.760
대인관계	가족관계	8.35	5.64	9.63	6.41	-1.015
	사회관계	15.15	4.63	14.43	5.27	.695
현실접촉	정신증	3.63	5.43	7.06	17.40	-1.433

* $p < .05$

3.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하위유형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13>와 같다.

<표 - 13>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상관관계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자아탄력성	1.00										
② 언어발달	.135	1.00									
③ 동작발달	.002	.648***	1.00								
④ 불안	.348**	.373***	.531***	1.00							
⑤ 우울	.280**	.393***	.495***	.710***	1.00						
⑥ 신체화	-.111	.020	.317**	.214*	.372***	1.00					
⑦ 비행	.113	.122	.078	.284**	.356***	-.044	1.00				
⑧ 주의력 결핍	.366***	.518***	.476***	.457***	.419***	.178	.291**	1.00			
⑨ 가족관계	.118	.275**	.346**	.403***	.589***	.270**	.297**	.550***	1.00		
⑩ 사회관계	-.085	.288**	.471***	.540***	.710***	.363***	.213*	.055	.293**	1.00	
⑪ 정신증	.129	.177	.211*	.412***	.495***	.100	.918***	.252*	.322**	.402***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사가 지각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하위영역 간에는 서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 언어발달, 동작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주의력결핍,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이 서로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자아탄력성 영역은 불안($r=.34, p<.001$), 우울($r=.28, p<.01$), 주의력 결핍($r=.3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대처능력이나 적응 정도는 우울,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많이 나타날수록 또래에 비해 부적응 정도가 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언어발달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동작발달($r=.65, p<.001$), 불안($r=.37, p<.001$), 우울($r=.39, p<.001$), 주의력결핍($r=.52, p<.001$), 가족관계($r=.27, p<.01$), 사회관계($r=.29,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 발달의 지체나 언어 기능상의 손상 정도는 아동의 불안, 우울, 주의력 결핍,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문제가 많을수록 지체정도가 또래에 비해 뒤쳐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작발달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불안($r=.53, p<.001$), 우울($r=.49, p<.001$), 신체화($r=.32, p<.01$), 주의력결핍($r=.48, p<.001$), 가족관계($r=.35, p<.001$), 사회관계($r=.47, p<.001$), 정신증($r=.21,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동작 협응정도 및 속도, 신체 발달, 운동발달 정도가 불안, 우울, 신체화, 주의력 결핍, 가족관계, 사회관계, 현실접촉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가 많이 나타날수록 또래에 비해 동작발달이 뒤쳐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체화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r=.27, p<.01$), 사회관계($r=.36,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주의력결핍($r=.29, p<.01$), 가족관계($r=.28, p<.01$), 사회관계($r=.21, p<.05$), 정신증($r=.9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반항과 불복종, 공격성과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현실접촉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가 많이 나타날수록 또래에 비해 비행 행동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력 결핍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r=.55, p<.001$), 정신증($r=.21,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동 행동의 충동성, 부주의한 측면, 과잉행동이 가족관계, 현실접촉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가 많이 나타날수록 또래에 비해 주의력 결핍 문제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사회관계($r=.23, p<.01$), 정신증($r=.2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긴장감, 불화정도, 부모-자녀관계 등이 사회관계, 현실접촉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가 높을수록 또래에 비해 가족관계 문제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영역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 중 정신증($r=.4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소외되어 있는 정도,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수준, 수줍음, 인간관계의 폭과 빈도 등이 현실접촉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경우 또래아동에 비해 사회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안 영역과 우울 영역은 각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모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나 사회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예민함, 걱정 등 불안과 관련된 문제와 우울한 기분, 자신감 결여, 활동성 저하, 사회적 철수, 자살 사고 등 우울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수록 또래 아동에 비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좀 더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등교사가 지각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인 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전 영역들과 서로 의미 있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인 부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 및 우울한 아동일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정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의 생활적응과 심리적 적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 152명의 담당교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된 97개의 자료를 빈도분포, 백분율, t - test, 상관관계를 이용한 분석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학업수행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아동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학년에 따른 생활적응 하위요인의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결혼이민자가정 저학년 아동이 고학년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일부는 문제행동(16.5%),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30.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는 아동의 비행, 대인관계, 현실접촉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학업수행과정에 어려움은 기초학습부진 및 언어, 수리적 문제해결력 부족, 학업태도에서 주의력 결핍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적응 하위요인의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언어발달, 동작발달, 주의력결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이 좀 더 언어발달, 동작발달, 주의력 결핍에 따른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를 좀 더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하위요인 중 두 집단 간 비행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저학년 아동에 비해 고학년 아동이 좀 더 반항, 공격성,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의 비행이나 품행상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하위영역 간에는 서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현실접촉 간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인 부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 및 우울한 아동일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사가 인식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은 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일부는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인식을 통한 결과가 일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선별하여,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제한점 및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지에 의한 교사용보고형 아동평정에만 의존하였고 본 연구의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다문화가정 아동 중 결혼이민자가정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실시하였으므로 한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 이들의 부모, 교사의 다각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과 연구방법에서 면접법, 관찰법, 비교문화연구법 등을 이용한 통합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정도를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관점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에게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경험 할 수 있는 심리적 적응 문제를 다루고 문제해결방법을 예견 할 수 있는 설명변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건강한 한국인으로 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2007), 제4회 경기도다문화교육포럼 - “다문화시대의 교육정책, 무엇을 해야 하나?”
- 김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한국청소년 상담원
- 김범수 외,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 센터 (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파주; 한울
- 전경숙(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200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 경기도: 양서원
- 제주특별자치도(2007). 2007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정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과제
-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다문화 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 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 청소년 상담원
- Eunsook Lee Zeifelder,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경기도: 양서원

<국내논문>

- 금지윤(2008).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 가정 유아 지도 현황 및 교사의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갑성(2007).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아동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Vol. 18. pp. 58-95
- 김경란(2007). 다문화 가정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자(2007).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경자(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원수(2006).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육 인식 실태 조사. 서울대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태호, 서혜석, 김인규(2008). 다문화상담의 실제. 2008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워크숍자료집. pp.23~26

남효진(2007).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정

체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노은영(2007).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교육 실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모경환, 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 수도권 국어 ·

사회과 교사들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

민자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설동훈(2006). 한국의 다문화 사회 실태. 다문화 사회의 교육; 현황과 대안. 세미나

발표논문.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동훈(2008). 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과 교육: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 토론회. 국회의원 원희목 주최

승해경(2008). 경상남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분석. 창원대학

교 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혜정(2007).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오성배(2005). 코시안 자녀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5. Vol. 32. No. 3. pp.61~83

오성배(2007). 코시안 자녀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비평. 2007. Vol.

22. pp.187~213

이영주(2007).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재분(2008).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실태.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
토론집. 국회의원 원희목 주최
- 장은숙(2008).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
구. 2004. Vol. 13. No. 3. pp. 33~52
- 정지영(2008).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의 특성 및 교사의 교육적 갈등. 창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현영(2006).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상황, 유현실(2007). 초등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심리적 문제: KPRC -TRF를 사용
하여.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7. Vol. 4. No. 2. pp.
173 -191
-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Hofsta, M. B., Van der Ende, J., & Verhulst, F.C.(2000). Continuity and change
of psychopathology from childhood into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9. pp. 850~858
- Risi, S., Gerhardstein, R., & Kistner, J.(2003). Children's classroom peer
relationships and subsequent educational outcom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2. No. 3. pp. 351~361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원희목의 희망나무. <http://blog.naver.com/heemokw>
- 제민일보. 2008. 10. 29
- 통계청(2008). 2007 혼인통계 결과. 서울
- 통계청(2008). 2008 청소년 통계. 통계개발원

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Psychological Adaptation in Children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Anna Jwa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 Dr. Yang Soon Kim

The present study aims at exami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psychological adaptation in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eachers in charge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with an opportunity to look into issue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prepare basic data in order to help them adjust to their life and adapt themselves psychologically.

Research subjects to attain this goal were selected 152 teachers in charge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who attend elementary school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id-November, 2008 to the beginning of February, 2009 for 3 months and 97 of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inall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to estimate the frequencies, mean, t-test, Pearson's co-relation.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difference recognized by teachers in life adaptation depending on the grade in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it appeared that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were at a higher rate than children in the senior classes in showing problematic behaviors.

Second, out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it appeared that some had problematic behaviors(16.5%) and had difficulty in achieving the academic performance(30.9%).

Third,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pending on gender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it appeared that boys were at a some higher rate than girls in suffering adaptation difficulties.

Fourth,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which was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it appeared that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suffer adaptation difficulties at a higher rate than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Fifth, it appear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ll factors between sub-area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which was recognized by elementary teachers.

The present survey has the meaning of study in that it dealt with the issue of psychological adaptation which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could experience and investigate explaining variables to predict solu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of inter-ethnic immigrant families and their growth into healthy Koreans.



부
부

<설문지>

초등교사가 지각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선생님께서 교육하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여 질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제주대학교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김 양 순

연구자 : 좌 안 나

I.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___ 남성 ② ___ 여성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___ 20 -29세 ② ___ 30 -39세 ③ ___ 40 -49세 ④ ___ 50세 이상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___ 0 -5년 ② ___ 6 -10년 ③ ___ 11 -15년 ④ ___ 16년 이상

4.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습니까?

- ① ___ 예 ② ___ 아니오

5. 다문화 교육을 배우셨다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입니까?

- ① ___ 교육기관 ② ___ 매스컴 ③ ___ 책이나 팜플렛 ④ ___ 친구
⑤ ___ 여행 ⑥ ___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 ⑦ ___ 기타 ()

II. 다음은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6.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별은?

- ① ___ 남성 ② ___ 여성

7.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년은?

- ① ___ 1학년 ② ___ 2학년 ③ ___ 3학년
④ ___ 4학년 ⑤ ___ 5학년 ⑥ ___ 6학년

8. 다문화 가정 아동의 출생지는?

- ① ___ 국내 출생 ② ___ 국외출생

9.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부모의 출생지는?

- ▶ 아버지: ① ___ 국내 ② ___ 국외
▶ 어머니: ① ___ 국내 ② ___ 국외

Ⅲ. 다음은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생활을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이나 경험과 같은 정도를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은?

- ① ___ 상 ② ___ 중 ③ ___ 하

11.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능력은?

- ① ___ 상 ② ___ 중 ③ ___ 하

12.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 ① ___ 상 ② ___ 중 ③ ___ 하

13.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① ___ 있다 내용:()
② ___ 없다

14.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① ___ 있다 내용:()
② ___ 없다

♡ 선생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